

환경이야기

태평관기영회 담론(40분)

2005-10-5 11:00 AM

30분소요

환경문제가 공론화되어
국제적인 현안이 되기 30여년이
지났지만 해결책은
다들 모르겠는 이야기

I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의 문명이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

반세기 전만 해도 환경문제가 전쟁, 질병, 기아 등의 문제들을 제치고 인류생존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부상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드물었다.

환경문제는 <자연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욕망충족을 위해 무한대로 성장을 확대한 나머지

자연의 자원과 순환기능을 무너뜨린 것을 말한다.

결국 환경문제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현대문명의 위기요인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먹던 10개의 빵을 5개로 줄여도 만족할 수 있는

정신 혁명 즉 <욕망억제의 철학>이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인권, 민주주의, 시장주의 경제 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데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정신혁명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되는데

경제를 우선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환경위기의식의 성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함께 죽는데 무엇이 무서우냐, 나 혼자 죽는 것이 무섭지>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환경호르몬, 광우병 등의 먹거리 문제가 불거지고

기후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환경위기의

징후를 실감하면서도

새만금 갯벌의 보존을 위한 성직자들의 3보1배행진이나 천성산 살리기를 위해 100일 단식을 감행한 환경지킴이의 진의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 세계를 무한경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신자유주의> 물결은

환경문제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의 설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인류의 생존을 담보로 도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데 고민이 따른다.

II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우리 인간의 환경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주변여건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문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 ① 인간 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등을 제공해 주는 것
- ② 반대로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화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기능의 관계는 인간 활동과 지구생태계의 순환기능의 일부이다.

환경문제란 이러한 순환기능을 교란시키고 파괴한 것을 말한다.

사람과 생물이 지금까지 향유해온 환경상의 편익 또는

앞으로 받아야 하는 편익이 감축된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환경문제는

<**산업공해문제**=환경오염>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 **지구환경문제**=환경파괴>
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공해문제는 국지적인 문제 또는 특정활동에 의한

일과성인 현상으로서 그 시정이 가능하다.

그에 비해 지구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존속문제와
관련이 있다.

환경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후대책**→**사전예방**)

환경위기의 원인:

환경부하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민수용품 생산에 투입되면서

소모품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인구폭증과 도시화 빈부의 격차** 문제가 더해지면서

지구환경파괴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대처할 수 있는**

① 인간중심으로만 <자연을 개발대상으로>

② 현세대인만의 것인 양 남용(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

③ 자연자원은 무한대라는 착각(자원고갈, 정화능력)에 **한계를 두지**

④ 문제해결 기술의존(기술낙관론) **파괴할 것은 개선할 것** 2013년에 **오존층 파괴물질**로 **관심**

환경문제는

자원소비를 많이 하는 <풍요함>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빈곤
함>의 양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선진공업국의 문제이면서 발전도상국의 문제이다.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지구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한편

우리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전기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하는
편리함과 풍요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22억을}
美國의 생활수준을 선망하며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선진국 추구형의 근대화정
책이 진행되는 한
환경위기는 가중될 뿐이다(공급관리→수요관리)

※ 중국의 전 인구가 미국의 LA 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따르게 하는 데에는 4~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최근의 최다의 인구(24억)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소비증대의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견잡을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그들의 소비욕구 충족에 나서고 있다.
인도인의 희망사항:(현대자동차, 삼성핸드폰, LG냉장고)

선진국의 소비증대가 없이
억제되었던 24억 인구의
소비증대는
엄청난 걸림돌이

환경문제 해결은

환경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또는 <자연과학적인 문제>로 간주하기 쉬우나 환경문제는 ①
자연과 인간 ②부유함과 빈곤함
③강자(선진국)와 약자(발전도상국) ④현세대와 미래세대 등의 관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필요로 장려해서
문제

환경문제의 딜레마는: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정치, 경제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과 <국가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크고 작은 수많은 회의들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과 지
표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국가대표들의 회의구조에서는 문제해결 불가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국제회의에서 민간단체가 Partner가 된 이유

민간단체가 가장
미국을 제외한
화합의 마차
에 올라타기

III 환경문제 인식의 공론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환경화기는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

• 3700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잉여농산물을 생산한

유프라테스 강 어귀의 옛 도시들의 농경지 염분오염으로 황폐화 되었을 것으로

• 2400년 전 Plato(Greece 철학자)가

산림훼손, 토양오염 개탄한 기록(지나친 목축, 땀감 벌목)

• 1861년 英國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경고

289 63년에 세계최초 <대기오염방지법 제정>

18 73년에 500명 사망 <대기오염방지기구 설치>

- 기원전 500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폐기물 처리장소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 ^{하는 등}

초기의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의 문제로서 지역적인 문제 ^{였지}

20세기 公害問題가 점철되어서 지구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로 국제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정상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형국제회의들을

이끌어내고 국가마다 대책마련에 나서게 한 단초는 ^{한 단초는}

1960年代末의 농약의 해악성을 파헤친 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에서 비롯되었다(환경문제 인식의 원전)

New York Times의 31주간 Best Seller Hardcover 50만부

지금까지 각국에서 번역 재판 거듭

봄이 되어서 새들이 울지 않는다는 친구의 편지 한 통에 자극 (농약의 해악성을)

Carson의 의도:

①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태계 오염과 교란을 경고, 고발 하고

② 自然과 人間의 공생의 사상 제고 ^{을 제창하려}

③ 농약문제를 소재로 人間과 지구, 자연과의 關係를 통해 생명존중인식 제고 ^{을 높이는 것이었지}

물론 살충제 생산과,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의 반발이 컸지만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 행사(30만 인파) 역사상 최초의 인파

환경문제를 우선과제로 부각 생명위협에 대한 경각심 불러일으키다

Kennedy 대통령의 환경의식 고취→

대통령 직속 농약기구 구성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주도

농약사용에 대한 국제법률제정 유도

美國은 물론 세계에 큰 반향, 충격을 주다.

또 하나의 단초는 ^{지구}

1960年代 말 <침묵의 봄>에 이어서 발표된

Rome Club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이다.

Rome Club이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과학, 경제 등 석학들의 모임 45명에서 출발 60년도에 75명의 모임

무한대의 경제성장과 자원소비, 환경오염이 지속되는 경우

과연 人間의 서식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집단이다.

<침묵의 봄>이 생명자체에 대한 문제제기(한면) ^{를 해하려}

<성장의 한계>는 인류의 생존기반인 지구위기에 대한 경고 ^{로써}

그래서 <인류위기보고서>라고도 한다.

시간관계로 자세한 설명 생략

보고서의 내용은:

- ①인구증가문제 ②식량생산문제 ③공업화문제 ④재생 불가능한 자원소비증가문제 ⑤환경오

염문제 등의 상호작용하는 成長이 계속되는 경우

100년 내에 人類 破국 불가피성 경고

기술혁명론과
북위

반론제기가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92년에 <한계를 넘어서> Beyond the Limit가 출판되고

최근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표 이후 30년간의 지구상태의

변화를 치밀하게 분석한 것을 토대로 지구의 재생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는 일본에서는 <성장의 한계, 인류의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지어진 책이 출판된 <Limits to Growth, The 30-year Update> 보고서가 나와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지금의 지구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지구를 붕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호소를 하고 있다.

물론

그밖에 인구나 식량 관련 등 다양한 연구결과물도 있다

공론화의 큰 작용은

크고 작은 회의들의 성과에서 이루어졌다

국제기구

① 1972년 스톡홀름의 '人間과환경회의' <지구는 하나> (냉전체제 하에서 핵의 위협속 美 주도→옛 소련과 동구권 불참 개발도상국의 不信 환경문제 대응 불비 한해)

외교부

1982년 UNEP 구성

115개국에 환경행정기구 설치

83년 WCED<환경과개발세계위원회>구성 — 24국으로만

87년 <우리의 공동미래보고서>발표

•환경과 경제 불가분의 문제로 규명하고

<지속가능발전개념 도출>

•국제적 협력관계로 문제해결 접근

<실천을 위한 국제회의 제창>→'92 지구정상회의 유인

② 1992 리우의 환경과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178명의 국가정상 참여(우리나라 정원식 국무총리 참석)

3만명 우리나라 NGO 100여명 참여 (110여명이 한(한)으로 한(한)이)

스톡홀름회의
한(한)이

동서문제, 핵위협에서는 自由

빈부문제로 인한 개발도상국(G77)의 강한 주장으로

남북갈등 현상 분출

강제적 구조, 경제구조 및 체제에 의해 — 20인간

남북간, 국가간의 대립현상 (동서냉전→남북갈등)

동서냉전 → 남북갈등

선진국의 소비주세 (대) 도상국의 인구증가문제

•지구환경문제해결의 청사진인

환경회의가 아니라 경제위기로의 주축과 이후의 환경

대립구조
강제적 구조

2002으로 불구하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21> 21세기 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 40개항 합의

환경문제는 <핵개발과 군축문제>처럼 정상들의

합의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지구시민 개개인의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정부와 Major Group의 역할 중시

국가별, 지자체별 의제수립 권장(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으로)

우리나라 국가의제 96.10 지자체 거의 94% WSSD에서 Best Practice 격찬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 (美 부시 거부)

2005년 2월에 발효

•<지속가능발전개념> 공식수용 → UN에 93년에 <지속가능발전위구성>

우리나라 2000년도에 구성 현재 갈등해소기능 부여

③ 2002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Rio+10)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재정리>-국내외 사회의 화두로 부상

Rio-환경위주 인상 남기다

WSSD-경제, 사회, 환경 등의 동시고려 및 균형발전

빈곤문제가 핵심 Issue-회의개최도 남아프리카에서

빈곤의 비참함 세계가 목격하는 기회

빈곤퇴치를 비롯한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와 생산양식 개선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10개항의 실천계획 합의

지구환경문제가 더욱 긴박해진 상황 재확인 하면서도

해결책 모색에서는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현상 재연

회의결과:

대형국제회의에 대한 기대 퇴색

메가급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

그밖의 회의들

1995년 <Rio+5>로 유엔환경특별총회

수시로 열린 환경장관회의

인구문제회의

주거문제

인권회의

기후변화회의

사막화문제회의 등 개최

지구환경개선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

말잔치로 이어지면서 실천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

목전의 국가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나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에게
미래지향적인 지구환경개선 또는 지속가능한
인간의 존립문제를 우선순위로 하라는 기대는 어렵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오늘의 지구환경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환경권 주장은 화경민간단체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NGO의 힘은
국경, 국적, 계층의 장벽을 넘어 연대, 주장 그리고 행동가능
국익에 얽매임 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목표설정 가능

국제기구로서의
Green Peace
Friends of Earth

우리나라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각 종파의 환경지킴이운동이 있다.

국제적인 인정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에 이름
왕가리 마타이

IV 남은 과제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정상들의 합의로
행동강령도 마련되고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도 만들어졌다
남은 과제는 이행에 옮기는 일이다.

지구환경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사안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활동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양식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변혁은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선 자리에서 정책, 생산, 소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실천하는데서 비롯된다.

세계에는 1992년부터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가리키는
<환경위기사계>가 가동되고 있다.

2002년에는 이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으니

인류에게 남겨진 시간은 3시간이다. *빛이 남지 않게 함*

바탕
2004년 11월에 우리나라 107개 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시국>을 선포한바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사계는 몇 시일까 짐작이 된다. *필것임*

이를 두고 사회일각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환경타령이냐고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노동자, 농민, 실질자 등 서민의 생존권을 찾기 위한
절규가 뒤섞인 가운데 환경지킴이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환경지킴이들이 운동사상 처음으로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후손들에게 빛을 남기지 말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 없다는데서이다.

36243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기조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오늘의 위기를 내일을 위한 기회로 바꾸어놓기 위한 것이다.

미31067 36243 22

한글이 이야기

태평관 기암회 답례 (40분)

2005-10-5 11:00 AM

I.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의 문명이 위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반세기 전만 해도 한글문명이 전쟁, 질병, 기아 등의 문제를 제치고 인류생존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은 두말하지.

한글문명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문명의 화기 품고 있다.

인간의 육체중추를 위해 무한대로 생명을 확대한 나머지 자연의 리듬과 조화기능을 문명화시켰음을 말한다.

결국 한글문명은 이치자성의 생명체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는데에서 현대문명의 위기로 인하여 잔존하게 되었다.

한글문명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버려진 10개의 문명을 소개로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리듬현상 중 <문명양식의 현상>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인간, 인공물, 시장주의경제 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거이 불가능한 일이겠는데서 전방을 향해 하고 있다.

리듬현상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되는데 공동체란

경제적 우선적 리듬에 있는 현실에서는 한글문명의 리듬의 리듬을 기대하기는 하기 힘들다.

<다함께 죽는다> 무엇이 무엇이냐, <다함께 죽는다> 무엇이냐? 라는 생각의 흐름이 있다.

한글문명, 광우명 등의 버려진 문명을 불거지고

이후이념으로 문명사상들이 패배를 양는 한글문명의 리듬을 심장 리듬으로

수반급 갯벌의 리듬을 위한 생식리듬의 3보11배 행진 이내 천생은 살리기를 위해 100억 리듬을 갯벌한 한글문명의 리듬의 전이도 위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세대를 위한 경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인공물> 문명은 한글문명과 같은 공동체적 리듬의 리듬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대한 문명 2세대가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으로 되는데도 아니는데 고민이 따른다.

II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우리 인간의 환경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과 인간의 관계는 두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인간활동 등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등을 제공해 주는 것

② 반대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것

이후자의 기능이 관계는 인간활동과 지구생태계의 순환기능의 일부이다.

환경문제는 이러한 순환기능을 교란시키고 파괴한 것을 말한다.

사람과 생물이 지상에 살아가기 위하여 환경상의 조건의 조는

앞으로 보아야 하는 조건의 감축된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문제는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산악공해 문제 = 환경오염> 과 <지구환경 문제 = 환경파괴>로
구분하고 있다.

산악공해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로는 생태환경에 의한

인간생존 위협으로의 그 위험이 지능하다.

2에 비하여 지구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조국 문제와 관련이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는 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후대행 → 미래대행)

환경위기의 원인:

환경위기는 인류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년간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민수용품 생산에 투입되면서

소모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의 소비패턴의 생활양식에 일치한 원인이 있다.

여기에 인구폭증과 도시화, 정부의 경제문제에 대처하면서

지구환경 파괴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① 인간 중심으로만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

② 현대에 대한 것이양 부족 (후세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

③ 자연과 무관한 태도를 갖기 (자원과 값, 처리능력)

④ 문제해결 기술의 부족 (기술 낙후)

III 환경 문제 인식의 공론화 및 해결에 이루어졌나?

환경 문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생긴 것

- 3700년 전 세계에 최초로 잉여농산물을 생산한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에서 잉여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수출입을 장려한 제도가 생겼는데, 이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
- 2400년 전 Plato (greek 철학자)가
산림훼손, 토양오염, 개간한 지주 (지주인 부족, 대농장주)
- 1861년 독일 석탄광산으로 인한 대기오염 경고
63년에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 방지법 제정> — 1970년
73년에 500만 명 이상의 <대기오염 방지법 제정>

초기의 환경 문제는 환경오염의 문제로서 지역적인 문제로
공론화 문제 → 지구 환경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제적 상들이 대기 오염에 대한 국제 회의 등을
이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에 느끼게 된 것

1960년대 중반의 농약의 해악성을 다룬 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에 의해 비롯된 것 (환경 문제 인식의 시작)

New York Times의 31주간 Best Seller 14만 5000부
지문까지 각국의 1200여 개 지점

북미에서부터 우리 같은 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Carson의 의도:

- ① 살충제 등의 화학 물질에 의한 생태계 오염과 관련을 경고, 고발
- ② 자연의 아름다움의 공생의 이상 제고
- ③ 농약 문제를 소재로 사회적 지주, 2000년의 (새)시대를 향해
생각을 촉구하는 것

물론 살충제 사용도, 36개의 환경악안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 행사 (30만 인파) 역사상 최초의 일

환경 문제를 우선시해 부각 생명 다양성에 대한 경각심 불러 일으키고

Kennedy 대통령의 환경의식 고취 → 대통령 직속 농약기구 구성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주도

농약 사용에 대한 국제법 제정 주도

미국으로부터 세계에 큰 반향, 동양의 주

다도리의 다도리

1960년대 말 <한국의 불>에 이어 발행된 Rome Club의 <생명의 한계> 보고서이다.

Rome Club이란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 경제 등 석학들의 모임 45개국에서 70여명으로 75명

무한대의 경제성장론 지지파에, 환경오염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세대의 자원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에 호응하는 집단이다.

<한국의 불>이 생명과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생명의 한계>는 인류의 생존 기반인 지구위기에 대한 경고
그러서 <인구위기 보고서>라고도 한다.

사실상대로
지속가능한 생명
생각

보고서의 내용은:

- ① 인구증가 문제 ② 식량생산 문제 ③ 공해 문제
- ④ 자생 불가능한 자원 소비증가 문제 ⑤ 환경오염 문제 등의
상호작용하는 성숙이 계속되는 경우
100년내에 사망될 수 불가피성 경고
반문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는 '92년에 <한계를 넘어> Beyond the Limit가 출판되고
최초 생명의 한계 보고서 발간 이후 30년간의 지구상태의
변화를 저밀하게 분석한 것을 토대로 지구의 자생능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는 임문에서는 <생명의 한계, 인류의 선택>
이름의 책이 출판된 <Limits to growth, the 30-year
update>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인간과 지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지구의 지구상태는 어떠한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리려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갈지
하는 한계 한계 한계 하고 있다.

2010년 인구와 식량 관련 등 다양한 여러 가지

공통의 관심사로
30 개국 회의의 성취에

① 1972년 스톡홀름의 '인간의 환경 회의' <지구환경 회의>

1982 UNEP 수립

115개국에 환경협력기구 설치

83 WCED <환경과 개발 세계위원회> 수립

87년 <우리의 공동 미래 보고서> 발표

• 환경과 경제 발전의 문제로 주목하고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입>

• 국제적 협력관계를 문제해결 차원

<인생을 위한 국제회의 제창> → P2 지구정상회의 추진

(생존위협에 처한
행위 위험성
북극권 → 0 및 22도
동극권 분할
개발도상국에 주의를
환경문제 대응 분담
한데

② 1992 리우의 '환경과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1984년의 지구정상 회담 (유엔과 36개사국들 참여)

동서문제, 핵위협에 대한 회담

비무장지대를 위한 개발도상국 (47개)의 강한 규범으로
남북갈등 해소 분담

국제정치, 경제구조 및 사회에 의해

남북갈등, 국제안과 경제를 대안으로 — (동서문제 → 남북갈등)

선진국의 소비 추세 (대) 도상국의 인구증가 문제

• <지속가능발전 개념> 공식 수용 → UN이 93년에 <지속가능발전기구>

• 지구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인 94년 200 (2000년)에 수립
<의제 21> 리우에서 지구환경 문제 행동계획 40개항 합의

환경문제는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 방법들의
협의를 필요로 함을 시사하는 것이 이었다.

지구상의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

지배적 Major group의 영향력
국제법, 리우에서 합의된 원칙 (개발, 기금, 사회(취약계층)으로)

•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 (북반구 기후)

2005년 2월에 발표

34개국
유엔UNCTD
100여개국 참여

유엔
국제법 96.10
지구법 94.10
WSSD에서
Best practice

③ 2002 남아공 리오데자네이루의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 회의 (Rio + 10)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과 내포) - 국내와 사회의 리더로 부상

Rio - 환경과 기후 이상 남기다

WSSD -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동시 고려 및 균형 발전

비공식적인 정상 Issue - 회의 개최로 남아프리카에서

비공식 비협조 세력이 북극화 등 기획

비공식적 중립적인 지속가능발전 못한 사회적 생산 양식 개선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604항의 실행 계획 있음.

지구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 재확인 리오데자네이루

해결책 모색에서도 여전히 회의의 양화로 여러 많은 정상 지역

회의 결과:

대형 국제회의에 대한 기대 회담

메가급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

24위에 회의됨

IPPS < Rio + 5 >로 주된 환경 특별총회

수위로 열린 환경 장관 회의

인구 문제 회의

주거 문제

인권 회의

기후 변화 회의

소속한 문제 회의 등 개최

지구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남아 있음

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여전히 심각히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여전히 심각히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극의 북극이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극

이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에게

미래에 향유할 지구환경 개선 등을 지속가능한 인간

인간의 조화 문제 등 우선순위로 리오는 기대는 아쉽다.

교차상 태에 빠져 있어 많은 양의 지구환경문제 해결

미래세대의 환경권 주장도 환경인간관계에 기대할 수 있음.

NGO의 힘은

국제, 국내, 제정의 장벽을 넘어 여러, 주권 고려 행동 가능

국정에 있어 있음 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목표 설정 ⑦

국제기후회의

Green Peace
Friends of Earth

우리나라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각종 시민 환경단체들이

국제적인 인력

개발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광기나 아니

IV 남포리제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정상들의 힘으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행을 직접적인 기구로 만들어 줬다.

남포리제도 이행에 열거는 열이다.

지구환경문제는 전세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양한 대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행동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식과 소비양식에 일대변혁이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변혁은 인간행동의 원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환경문제를 거창하고 복잡하다면

그 해결은 365는 365대로, 기업을 기업대로 그리고

개인과 개인대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 생식, 소비를

환경정책적으로 식별하는데서 비롯된다.

세계에는 1992년부터 지구환경의 양해각서를 기치로

<환경위기 세계>가 거듭되고 있다.

2002년에는 이세계가 9회를 거듭하고 있다

인류에 남겨진 시간은 3시간이다.

2004년 1월에 우리나라 10개 관청에 공동으로

<환경위협>을 선포한데 앞선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위기로 벌써 일찍 감각이 된다.

이제 우리 사회일각에서는 먹고 살기로 힘든데

또 환경위협이라고 하는이들로 주리 굶다

노동, 농민, 실직자를 위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가 위급한 가운데 환경위협이 더욱더

힘을 뻗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환경자본이들이 수동적 처치로

환경위협위기를 피하고 나뉘는

후손들에게 남겨 놓는 것

가르침을 되새기며

후세에게 지식을 물려줄수 있는게서 이리

한세월의 <신재주지> 기록을 세대의 후세로

앞의 후기로 내일로 위한 기록

내일의 후기로 위한 것이다.